

50만원대 중저가 핸드폰시대…가성비 최고 ‘인기몰이’

애플 ‘아이폰se’ 레드색상 사전예약 판매후 1시간만에 완판 기록

삼성 30만원대 갤럭시 A31·LG 80만원대 스마트폰 벨벳 등 출시 경쟁

고성능, 고속 인터넷 통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고급화만을 추구하던 스마트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애플을 필두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업계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고성능보다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6일 애플이 출시한 50만원대 스마트폰 아이폰se가 선호단이 됐다.

아이폰se는 지난달 29일부터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수 시간만에 온라인 장터 곳곳에서 잇따라 ‘완판’을 기록했다. 레드 색상 모델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판매 시작 1시간만에 완판됐다고 알려졌다.

삼성도 동참했다. 지난 7일 갤럭시 A31(30만원대), A51(50만원대)을 동시에 출시한 데 이어 오는 15일 갤럭시 A71(70만원대)까지 출시를 예고했다. 또 LG도 신형 스마트폰 벨벳을 80만원대 가격으로 15일 출시하기로 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낮은 가격에도 플래그십 모델에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갖고 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폰se가 아이폰11에도 적용된 최신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와 3세대 뉴럴 엔진을 탑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 갤럭시 A51과 A71은 5G 통합 모바일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980을 채용했으며, 각각 4800만, 6400만 화소 고화질 쿼드 카메라로 무장했다.

LG 벨벳도 5G 칩셋인 퀄컴 스냅드래곤 765를 탑재했으며, 최대 4800만 화소의 카메라 4개(전면 포함)를 장착했다. 듀얼스크린 케이스를 이용한 2개 화면 멀티태스킹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성비’ 스마트폰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 초 스마트폰 시장은 다소 주춤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던 지난 2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까지 감소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코로나19로 이동통신업체 오프라인 판매처가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했으며, 소비자 수입이 줄고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오프라인 구매가 어려워진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매출 감소는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에서 두드러

졌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0 시리즈의 올 상반기 예상 판매량은 2000만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았던 3500만대보다 42% 가량 적은 수치다.

2016년 이후 4년 동안 중저가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던 애플도 3월 기준 3개월 간 제품 판매 매출이 4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65억 달러보다 3.5% 줄어들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가 돼 주고 있지만, 이제는 고사양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중국 제조회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출시를 앞둔 중국 제조회 스마트폰은 샤오미 홍미노트9S(20만원대), 5G 스마트폰 홍미K30(30만원대), 오포 5G 스마트폰 리노 3프로 5G(50만원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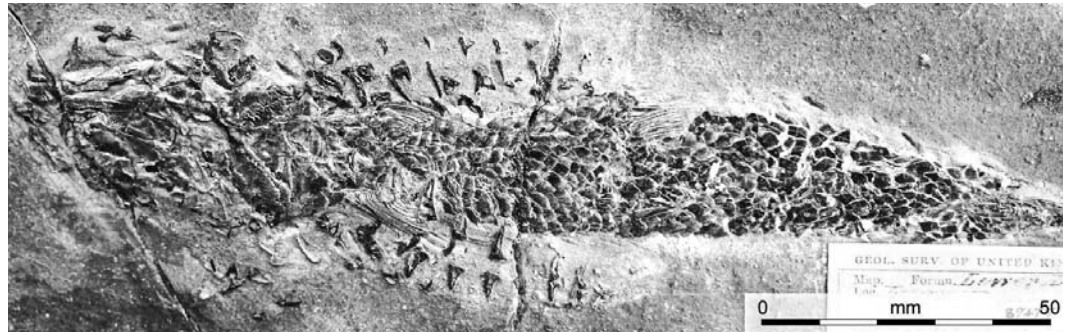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천리안 2B호로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발사한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 2B호(3.4t급)’로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공개했다. 기존 위성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 개선된 천리안 2B호는 해양탐사채를 통해 항만·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등 해양정보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환경탐사체로 분석한 대기환경 관측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부 제공〉



왼쪽 중앙 상단과 하단의 검은 돌기들이 C. 몬테피오레이의 다리이며 오른쪽은 청어를 닮은 D.베체이의 몸통과 꼬리 부위다.

/연합뉴스

물고기 잡아먹는 오징어?

영국 플리머스대학 연구팀 19세기 발굴…2억년 전 화석 재해석

청어 비슷한 물고기 머리 뼈가 포식자에게 으깨진 것으로 분석

약 2억년 전에 오징어와 비슷한 포식자가 청어를 닮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화석이 확인돼 학계에 보고됐다. 이른바 ‘포식’ 화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화석은 19세기에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서 발견돼 ‘영국지질연구소’(BGS)에 보관해 오던 것으로 플리머스대학 과학공학부 매크 하트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재해석을 통해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플리머스대학에 따르면 연구팀은 화석의 주인공이 오징어를 닮은 ‘클라르케이테우티스 몬테피오레이’(Clarkeiteuthis montefiorei)로 입에 청어와 비슷한 물고기인 ‘도르세티크티스 베체이’(Dorsetichthys bechei)를 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C. 몬테피오레이의 다리와 D. 베체이 몸통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아니라 물고기의 머리 뼈가 포식자에게 분명하게 으깨진 고대 포식 사건을 그대로 담은 화석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런 화석이 남게 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물고기 크기가 C. 몬테피오레이에는 너무 커 목에 걸리면서 물 다 사망해 바닥에 떨어져 화석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포식자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먹이를 바닥으로 가져가다가 산소가 너무 낮은 곳까지 내려가 질식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대) 포식 사건이 지질기록으로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는다”면서 “포식자와 피포식자가 모두 죽어 화석으로 보존된 특이한 잔존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 사건이 약 1억9900만~1억9000만 년 전 시네무리움기에 일어나 지금까지 발굴된 포식 기록보다 1천만년 이상 앞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질학자협회 회보’(Proceedings of the Geologists' Association)에 실릴 예정이며, 유럽지구과학학회(EGU) 연례총회의 온라인 대체 행사인 ‘셰어링 지구과학 온라인’(Sharing Geoscience Online)을 통해서도 발표된다.

/연합뉴스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센서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망막 진단용 공간섭단층영상기기. 〈한국광기술원 제공〉

안과 망막질환 진단용 망막 공간섭단층영상기기 개발

한국광기술원, 녹내장·황반변성 환자 광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기대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이 최근 안과용 망막 질환진단에 표준검사로 사용되는 2·3차원 영상 획득용 망막 공간섭단층영상기기(Retin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를 개발했다.

기기는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센서연구센터 엄중현 박사과 박안진 박사 팀이 개발했다. 고속파장 가변레이저기술을 활용한 망막 진단 시스템으로, 고해상도 3차원 단층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기기는 고속의 파장가변레이저를 망막 조직에 비출 때 발생하는 레이저 간섭신호를 그래픽처리장치(GPU)기반 연산과정을 통해 고해상도 3차원 망막 단층 영상으로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연구팀은 3차원 망막단층영상, 혈관 구조영상 등을 볼 수 있는 3D 영상구현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과질환 진단기기 시장은 80%가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제품이다.

최근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 환자가 매년 10~20% 씩 늘어나고 있어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기기 개발로 고속 망막공간섭단층영상기기 국산화를 앞당겨 해외 안과질환 광진단기기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발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소재 개발 근적외선 조영물질 및 영상진단기기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은 “이번 고속 실시간 망막 공간섭단층영상기기 개발로 국내 기업지원을 통한 망막진단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겨, 망막질환 진단 시장에서 국산제품 점유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기술 거점기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